

시묵음

8천만이 함께 쓰자 통일의 새 역사를

통일의 태양으로 빛나신다

김 윤 식

저 하늘에 솟은 해는
 눈으로 본다 하라
 허나 우리 심장에 비쳤노라
 2018년 새해의 아침
 겨레의 앞길 찬란히 밝히는
 눈부신 통일의 태양을

분렬의 암흑세월 불사르시며
 겨레앞에 나서신 태양의 존안이어
 통일에 대한 념원
 겨레에 대한 정이 그리도 불같이시여
 터놓으시는 진정 불처럼 뜨거우신가

구절구절 애국의 넋 불리일키며
 우리 함께 통일의 새 역사 써나가자 호소하실 때
 아, 통일조국의 눈부신 해맞이런듯
 천지의 푸른 물도 걱정에 파도치고
 한나산 백록담도 환희에 출렁이여라

심장이 없이 살수 없다면
 그 심장을 주신것이다
 캄캄한 어둠의 길 빛없이 갈수 없다면
 그 빛발을 주신것이다
 원수님 밝혀주신 통일의 경륜이어

듣는가,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

높뛰는 심장처럼 분렬을 태우는 불길처럼
 겨레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절세위인의 통일진리
 그 넋에 그 뜻에 겨레가 매혹되는
 뜻깊은 2018년의 첫 아침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헤어져 사는 겨레의 모진 아픔도
 얼음장같은 분렬세월이 칭칭 감긴 이 땅도
 태양의 열화로 녹여주시며
 민족의 화해, 통일의 길 밝혀주신
 원수님의 하해같은 그 은공을

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리
 민족의 은인, 통일의 령수 김정은장군
 겨레가 맞이할 통일도
 민족의 눈부신 미래도
 오직 그이의 거룩한 손길따라
 삼천리에 밝아오리니

오, 희망찬 2018년
 통일의 태양 우리리
 삼가 경하를 드리노라
 부강번영할 통일강국의 앞날로
 온 겨레를 이끄시며
 북남삼천리에 찬연히 빛나시라!

묻는다 민족의 광섬앞에

김 송 림

해마다 새해의 첫 아침이면
 우리 겨레 누구나 소원했어라
 대결의 동토대 밀려가고
 평화의 봄빛 마스히 비쳐들기를
 불구름 가셔진 저 푸른 하늘아래
 우리 아이들 웃음 꽃처럼 아름답기를

묻노니 겨레여
 우리 불처럼 타는 이 마음 없으며
 맞고 보낸 해는 그 몇몇해
 언제까지 그 소원 안타까이 부여안고
 아픔의 날과 달 보내야 하는가

홀려간 세월은 보여주고있더라
 겨레가 뜨거운 손 맞잡지 못하고
 서로 대결의 총구를 내뿜 때
 하늘엔 불구름 가실날 없고
 그만큼 통일은 아득히 멀어졌음을

대답해보라 민족의 광섬이어
 가슴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다면
 심장에 끓는 소원이 통일이라면
 또다시 이해를

대결과 불신으로 보낼수 없지 않느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 세월
 우리 결단코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합도
 꿈에도 소원인 통일도
 삼천리에 안아올수 없거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접 못할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민족
 그 슬기론 기상, 무한대의 힘을 떨치며
 기어이 안아오리랴
 분계선이 없는 하나가 된 통일조국을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
 세세년년 누려갈 통일조국의 미래
 8천만이 얼싸안고 함께 울고웃을
 통일의 그날을 위해
 전쟁을 막아 산악처럼 일떠서라
 평화를 위해 격랑되어 일떠서라

아, 희망속에 밝아온 새해의 아침처럼
간절히 불타는 겨레의 념원

전쟁이나 평화나
분렬이나 통일이나

민족의 광섬이어 대답하라
새해의 물음앞에 력사의 물음앞에

우 리 만 나 자

리 송 일

삼천리강토에 새해가 밝았다
 남녘의 형제여
 우리 흥금 터놓고 말해보자
 대결과 불신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처럼
 우리 또 삼백예순다섯날을 보낼것인가

대대손손 한강토, 한하늘아래서
 한피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분렬세월 아무리 모질다한들
 어찌 피를 나눈 혈육의 정까지 잃으랴
 불화와 반목의 멍에 벗어던지지 못하랴

돌이켜보자, 환희와 격정의 시대
 6.15가 준 감격의 그 날과 달들을
 열려진 하늘길 배길 땅길따라
 북과 남이 서로 오가던 시대
 만나 순간에 정이 통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그 나날들을

북과 남의 겨레들아
 어찌 소중하고 귀중한 그 나날들
 홀려간 세월의 추억속에 묻고
 가슴에 애라는 그리움으로만 안고 살랴

반목과 질시의 비극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한민족이라고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분렬과 대결의 세월 저 멀리 밀어던지고
 만나자, 우리 만나 함께 가자
 통일의 태양이 밝혀주신 진로따라
 화해와 단합의 대통로 열어나가자

그 누가 열어주지 않는 길
 기다려 저절로 열리지 않는 길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뜻과 정을 합치고
 마음맞춰 발맞춰
 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세계가 우리를 지켜본다
 겨레여, 우리 만나자
 모여앉아 조국의 래일을 설계하자
 저 푸른 삼천리 하늘가에
 통일의 환희가 짝 차넘치게

더 높이 들자 민족자주의 기치

김 영 일

분렬의 년륜을 새겨야 할 해인가
 2018년은
 8천만겨레여, 생각해보자
 이 땅의 분렬이 왜 70년을 넘겼는지

3천만겨레가 8천만이 되도록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우리 겨레 애타게 통일을 바랬건만
 어이하여 분렬은 지속되었던가

통일을 불러 흘린 눈물 적었더냐
 통일을 위해 바친 피가 모자랐더냐
 그리움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 가슴가슴들을 헤쳐보라
 그것은 외세가 남긴 상처다

생각해보라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그들이 동정이나 했던가, 우리 겨레를
 혈육이 그리워 피눈물을 흘릴 때
 북남간에 서로 썰기를 치며
 어부지리만 추구했거니

이런 외세를 밟고
북남관계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

언을것이란 동족대결과 전쟁뿐
어이 이룰수 있으랴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70여년의 분렬력사가
 준절히 깨우쳐주나니
 북남관계의 주인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끼리 마주앉아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통일의 출로도
 우리 민족끼리 마음합쳐 열어가자

심장에 새기자, 8천만겨레여
 새해의 첫 아침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 하신
 통일태양의 절절한 그 호소

그 애국의 호소 심장에 새겨안고
 겨레여, 통일의 년륜으로 새기자
 2018년을
 우리 민족끼리 굳게 잡은 손으로
 8천만이 함께 쓰자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관계개선의 귀중한 첫걸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념원
 해온 우리 겨레에게 새해의
 시작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
 다. 지난 9일 온 겨레와 내외
 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관
 문점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
 회담에서는 남조선에서 열리
 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
 대회의 성과적인 개최와 북남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
 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
 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
 렵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
 레는 새해의 첫 기슭에서 소중
 한 북남합의가 마련된것을 다
 같이 기뻐하고있으며 합의들
 이 성과적으로 리행되어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불과 며칠어
 간,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고 할수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대결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북

남관계가 극적인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
 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
 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
 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
 날수도 있다고 하신 절세위인
 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펴
 쳐져 온 겨레의 가슴을 벅차
 게 하는 북남합의가 마련된것
 이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신속히 열
 리고 여기에서 북남합의가 이
 룩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
 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며 주동적인 제의에 의해 마련
 된 소중한 결실이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
 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
 로 도와주는것은 옹당한 일이
 며 무슨 일에서나 시작을 어떻

게 떼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은 이번 공동보도문
 을 통해 군사적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
 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접촉과 래왕, 교
 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북남선언들의 기치아래 북
 과 남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
 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
 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면 경색국
 면에 처해있던 북남관계가 점
 차 개선될것이며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될것이다.

이번에 북남고위급회담을 통
 해 북과 남이 함께 내딛은 의
 미있고 좋은 첫걸음이 북남의
 화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지금 온 겨레
 는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